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Gen. HongBumDo Memorial Society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10길 17(신교동)
TEL : 02)734-8851~2 FAX: 02)722-0251 www.hongbumdo.org

2021.07

봉오동전투
101주년
기념호

날은 **홍범도장군**

www.hongbumdo.com | 발행인 우원식 | 편집인 홍순계 | 창간 2014년 8월 15일



“새 100년의 시작!”
봉오동전투 전승 101주년 기념식

남산 르네상스 완성,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남산!



봉오동 전투 101주년 기념호

2	봉오동전투 기념식	봉오동전투 의의와 시간별 전투상황 편집국
4		봉오동전투 101주년 기념식
5		기념사 우원식 이사장
6		축사 황기철 국가보훈처장관, 김원웅 광복회장(허현 부회장 대독), 이종찬 명예이사장
9	학술회의	잊힌 역사, 자유시참변을 기억하다 - 자유시참변 100주년 학술회의 참관기 - 김경준 한국외대 사학과 석사과정
12		주제 1 _ 자유시 집결 항일무장세력의 동향과 대응 송영화 역사학연구소 연구원
14		주제 2 _ 러시아 내전기 극동지역 볼셰비키의 정책갈등을 통해 본 자유시참변 재검토 오세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
16		주제 3 _ 1922년 자유시 참변 1주년 논쟁 주미희 한국외대 강사
18		학술회의에 대한 논평 반병률 한국외대 사학과 교수
22	연재	독립영웅기념관 국내편(4) 몽양여운형 생가기념관 정이숙 작가
24	회원투고	역사와 미래 탐사대 '남한산성 답사기' 강석영
27		雨中登南漢山城 朴輝峰(Piao Hui Feng)
28		예장공원에 이회영기념관 개관 황원섭 부이사장
30	회원동정	〈회원 기업 소개〉 '케이잡스'
31		반병률 교수 정년 퇴임, 남양홍씨 '당성지 발간' '장학회 발족'
32		여러분의 정성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희비 입금현황, 임원명단

봉오동전투 의의와 시간별 전투 상황

- ▶ 배경
- 1919년 3·1 운동,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 192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1920년을 독립전쟁 원년으로 선포
 - ‘대한’ 독립군 : 단순한 의병이 아니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인이라는 자부심
 - 1919년 하반기부터 독립군 국내진공 활성화, 일본군 정보수집, 국경수비강화
 - 1920년 3월~6월 독립군 국내진입작전 32회 (국경수비대, 파출소, 우체국 등 공격)

06.04



- 새벽 5시** - 북로제1군 사령부 협조하에 신민단(박승길과 24명) 국내 진입작전
 - 일본군 남양수비대와 교전 후 삼둔자(중국) 마을에서 휴식
- 10시** - 일본군 니이미중위 남양수비대(29명) 출동
 - 월강(중국영토 침범) 삼둔자 마을 진입, 무차별 사격, 민간인 학살

06.05

- 일본군 19사단 야스카와 월강 추격대와 추가편성

06.07



- 새벽 3시** - 남양수비대, 월강추격대 합류 안산 집결 (일본군 약 310명 규모)
- 새벽 3시 30분** - 독립군과 재교전 (안산전투)
- 독립군 지휘부 일본군 월강 봉오동 진군 정보 입수, 추격대 격퇴준비 독립군 배치 및 주민 대피 (봉오동은 약 10km에 이르는 분지 형태로 홍범도 부대는 4개 중대로 편성 봉오동 골짜기를 포위 배치)



- 오전 6시 30분** - 이화일 소대 매복, 일본군 매복 공격



- 12시 20분** - 이화일 부대 봉오동 골짜기로 일본군 유인
 - 전투 개시 3시간 가까이 치열한 교전
- 독립군의 작전계획대로 봉오동 상촌 독립군 700명이 잠복해 있는 포위망 가운데로 들어옴.
홍범도 장군의 명령에 따라 동·서·북 3면에서 협공하니 일본군은 갈팡질팡하면서 쓰러짐
- 야스카와 소좌 735고지(비파동) 방향 이동(후퇴) 명령 도주하는 일본군 추격



- 16시 20분경** - 천둥이 치고 폭우가 쏟아지는 일기 불순으로 공격 중지
- 밤** - 일본군 함복 온성 유원진 건너편 까지 철수



○ 봉오동전투 전과

-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부 발표
 - 일본군 : 전사자 157명, 중상 200여 명, 경상 100여 명
 - 독립군 : 전사 2명, 중상 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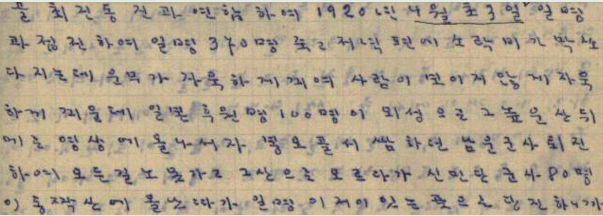
○ 봉오동전투의 의의

- 독립군 각 부대가 처음으로 연합하여 간도에 침입(불법 국경 월경)한 일본군 정규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둠
- ‘독립전쟁 1회전’으로 불리며 이 승리를 계기로 독립군들의 사기가 크게 높아져 항일 무장투쟁이 활발히 전개 됨

[홍범도 일지] 봉오동전투 설명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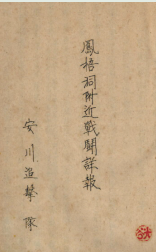
(그의 평생을 의병과 독립군으로 독립전쟁에 바치신 장군에겐 봉오동 전투도 여러 전투 중 하나로 일지엔 짧은 몇 줄로 언급)

20년 3월 초 3일에 무단봉에 나가 사흘 유숙하고 있다가 행군하여 봉오골 최진동 진과 연합하여 1920년 4월 초3일(음력) 접전하여 일병 370명 죽고 저녁편에 소낙비가 막소다 지는데 운무가 자욱하게 끼여 사람이 보이지 않게 자욱하게 끼운데 일본 후원병 100여 명이 외성으로 그늘은 산뒤에로 올라서자 봉오골서 삼하던 남은 군사 퇴진하여 오는 길로 못하고 그산으로 오르다가 신민단 군사 80명이 동쪽산에 올랐다가 일병이 저이 있는 골으로 당진하니까 내려다 총질하니 일병은 갈곳이 없어서 맞우 총질한즉 올라가는 철에 후병이 몇이 죽으니까 쪽쇄포로 내려다가 불니니 신민단 군사 한 개도 없이 죽고 일병이 수백명 죽고서로 코코소리듯고 총소리 끊어지였다. 그때 왔던 일병이 오육백명 죽었다’



홍범도 일지 중 봉오동전투 부분

일본군 ‘봉오동전투 상보’ 중에서 일본군은 불법으로 중국 영토를 침입하며 독립군 소탕 작전에 나섰으나 홍범도 장군의 뛰어난 매복 전술과 연합 독립군의 사방 포화에 일방적으로 당함
‘... 사격을 받았으나 적(독립군)은 교묘히 지물을 이용하여 그 위치가 분명치 않고 탄환은 사면에서 날아와 전황불리의 상태에 빠졌다...’



일본군 봉오동전투 상보

봉오동전투 101주년 기념식

1920년 6월 7일 독립전쟁 1회전! 봉오동전투, 새로운 100년을 열며, 2021년 독립전쟁 전승기념 축제의 개막을 열었습니다.

봉오동전투 101주년 기념식이 6월 7일 15시 안중근의사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봉오동전투 영상자료 '날으는 홍범도가' 뮤직비디오 관람에 이어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축하공연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우원식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영상 축사에 이어, 국가보훈처 황기철 장관을 시작으로 김원웅 광복회장(허현 부회장 대독),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지선 이사장, 이종찬 명예이사장이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축하공연은 어린이 노래클럽 '작은평화'의 공연으로 '날으는 홍범도가', '압록강 행진곡'에 이어 합창단과 내빈 모두 '독립군가를 함께 부르며 기념식을 마쳤습니다.



어린이합창단과 기념 촬영



왼쪽부터 지선 스님, 이종찬 명예이사장, 우원식 이사장, 황기철 장관



내빈과 기념사업회 이사진



한편 해군잠수함사령부 소속 '홍범도함'도 이날 봉오동전투 전승 101주년 기념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홍범도함 승조원들은 (사)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기념식 행사에 매년 참여해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함 자체행사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홍범도함 승조원들은 홍범도 장군의 부대가 봉오동전투에서 승리한 지 꼭 101주년이 되는 7일 전해 해군기지 내 잠수함 부두에 모여 봉오동전투 역사 낭독 올해의 여천인(汝千人) 시상식 해양수호 결의대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여천(汝千)은 홍범도 장군의 호로, 지덕체를 갖춘 홍범도함 승조원이 동료들의 추천을 통해 올해의 여천인으로 선정됩니다. 결의대회를 주관한 이용태(대령) 홍범도함장은 봉오전투를 승리로 이끈 홍범도장군의 호국정신을 되새기며, 우리 승조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임무 완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봉오동전투 전승 101주년 기념사



우원식 이사장

봉오동전투 전승 10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봉오동전투는 개별 전투의 승리를 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구상하고 계획했던 '독립전쟁 1차 대승리'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20년을 '독립전쟁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독립전쟁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지원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도 독립전쟁의 해가 도래한 것을 기뻐하며 1년 안에 독립을 해내고 말겠다는 의지를 불태우셨습니다.

101년 전 만주 땅에서 일어난 봉오동, 청산리전투 모두, 우리 독립군과 일제의 독립전쟁이었습니다. 독립전쟁에서 이뤄낸 승리는 독립운동의 역사에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일제 식민지배로 고통 받던 우리 민족에게 자신감과 자부심을 심어주었고,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증명한 위대한 성취입니다. 우리 마음 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승리의 DNA'가 바로 독립전쟁의 승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독립전쟁은 우리 모두의 전쟁이었습니다. 독립군들의 훌륭한 전술과 의지도 있었지만, 신분, 직업, 성별에 관계없이 독립군의 무기와 군복, 식량을 지원하고, 없는 살림에도 자신들의 것을 내어 준 민초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임시정부의 체계적 준비와 탁월한 지도자의 리더십 그리고 민초들의 하나 하나의 뜻이 모여 만들어낸 승리의 역사입니다. 공동체의 협력과 연대의식이 빛났던 최초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독립으로 성취하고자 했던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에 대한 열망은, 평안도에 사는 사람도, 전라도에 사는 사람도, 함경도에 사는 사람도, 경상도에 사는 사람도 매한가지였습니다.

오늘의 시각으로 보면 식민지배와 민족 차별에 대한 저항이 당연시되지만, 그건 당위가 아니라 목숨을 건 싸움이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지난한 투쟁의 과정이었습니다. <임살> 영화 마지막 장면에, 일제 밀정이었던 염석진이란 인물인 "해방될지 몰랐다"고 변명하는 장면만 봐도 민족성과 존엄성을 지키는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고달팠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때 머슴으로, 나팔수와 식객을 전전했던 평민 출신 의병장이자, 의병장 출신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인 홍범도 장군은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당장의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했는지 모르는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웠습니다. 광복은 이렇게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와 희생으로 쟁취해낸 위대한 역사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바로 세우고자 했던 독립정신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호국정신으로, 국민의 살길을 열어 온 산업화와 국민의 권리를 찾아온 민주주의 정신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통합의 정신으로, 통일을 향한 평화의 정신으로 이어나가야 합니다. 이 길에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는 독립전쟁의 기억을 자랑스러운 승리의 역사로 확장해 갈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 기념식을 시작으로, 청산리전투 기념행사, 홍범도장군배 사격대회, 역사캠프와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 중입니다. 과거의 기억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진취적인 미래정신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3.1절 기념식에서 홍범도 장군의 부인 단양이씨와 장남 홍양순 선생의 건국훈장 애국장 포상이 있었습니다. 이번 포상에 차남 홍용환 선생의 독립유공자 포상에 포함되지 못했는데, 앞으로도 이름도 없이 잊혀진 영웅들을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의 이름으로 소개나가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된 홍범도장군의 유해봉환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독립전쟁 100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인 오늘, 독립전쟁의 역사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경제발전과 민주화, 호국과 평화를 향한 길을 밝히는 현재와 미래의 정신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가며 이루려고 했던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의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2021.6 이사장

우원식

봉오동전투 전승 101주년 기념 축하

황기철 국가보훈처 장관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민족의 독립전쟁 역사에서 영원히 기억될 봉오동전투 전승 101주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기념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봉오동전투는 항일독립전쟁 최초로 일본 침략군과의 전면전에서 일본군 157명을 사살하는 등 대승을 거둔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입니다.

101년 전 오늘, 중국 길림성 봉오동 계곡에 울려 퍼진 승리의 함성은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치밀한 계획과 용기, 투혼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또한, 봉오동전투는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어제의 농부가 오늘의 독립군이 되었고, 여성들은 농사지은 곡식을 팔아 군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병력과 무기의 열세를 극복한 이날의 승리는 일제의 침탈에 고통받던 우리 민족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으며, 대륙 침략을 노리던 일제에는 커다란 타격을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봉오동의 승리는 만주지역 독립군의 사기를 높이고 무장투쟁의 역량을 키워 그해 10월, 청산리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발판이 되었습니다. 저는 국가보훈처장으로서 숭한 가시밭길을 걸으면서도 꺾이지 않는 의지와 투혼으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셨던 애국선열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일제강점기, 조국독립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던 선열들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은 오늘 의 우리에게 남겨진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는 홍범도 장군님을 비롯한 봉오동 승리의 주역들, 평범한 이들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야기를 언제나 기억할 것입니다.

정부는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건물을 복원한데 이어, 홍범도 장군님의 유해가 대한민국에서 영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11월에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개관하여 독립군을 비롯한 선열들의 고귀한 생애와 정신을 온전히 계승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희생과 헌신'을 자처하셨던 봉오동 영웅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억하는 한, 우리는 반드시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기념식이 결코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기필코 승리의 역사를 썼던 선열들의 업적과 정신을 다시 한 번 가슴 깊이 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봉오동전투 전승 101주년 기념 축하

김원웅 광복회장 (허헌 부회장 대독)



101년 전 오늘은 홍범도 장군이 이끈 대한독립군단이 북만주 화룡현 봉오동 골짜기에서 조국광복을 염원하며 일본군과 일전을 벌여 승전보를 올린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 잊을 수 없는 전투가 개시된 오후 3시에 맞춰 전승 기념식을 거행하는 것도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일본이 독도영토 억지 주장을 철회하지 않음으로써 본성인 침략야욕을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는 이 때, 오늘 기념식이 가지는 의미는 우리에게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봉오동전투는 당시 일본군과 비교하여 전략과 전술, 전투병력 및 무기현황 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은 조건 속에서 전투에 임해 우리 독립군이 대승을 거둔 전투였습니다. 우리가 악전고투 끝에 이긴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길 싸움에서 이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국제무대에서 다른 나라를 상대로 일본과의 외교전을 벌여 나갈 때는 봉오동전투에서 승리한 독립군 선열들로부터 배울 점이 많습니다. 전투에서는 이길 조건과 논리 등을 모두 갖추고 대응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복수심이나 감정상으로는 결코 상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은 우리 국민들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독일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전범의 상징이 일본 옥일기라는 사실을 우리만 알고 울분과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제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일본이 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도 국제사회에 알려 세계인들로부터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교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일본은 국제외교에 직·간접적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IOC가 독도영토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문제 삼지 않은 것은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봉오동전투와 청산리 전승의 역사는 우리 독립군이 일본과 싸워 이긴 항일독립투쟁사의 위대한 금자탑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우리만 알고 자축하고 자축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세계무대에 널리 알려야 합니다.

BTS로 대변되는 K-pop이 한류열풍을 이끌고, 국제무대에서 각종 상을 휩쓴 한국영화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100년 전 일제 식민지배에 허덕일 때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모처럼 조성된 문화강국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50년의 고난 속에서 펼쳤던 우리의 독립운동 역사 또한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봉오동 전승 101주년을 맞아 새로운 100년을 여는 첫해에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봉오동전투 전승 101주년 기념 축하



이종찬 기념사업회 명예이사장

봉오동전투 전승 101주년을 맞아, 기념사업회를 처음 창설했던 사람으로서, 축하를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봉오동전투 전승 기념행사가 안중근의사 기념관에서 개최하게 되어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의사는 홍범도 장군과 같이 의병 전쟁을 벌였던 분입니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처단하고, 일제의 법정에서도 당당하게 법정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안 의사는 “나는 살인범이 아니다. 대한의군의 참모총장으로 적장을 처단한 것이니, 제네바 공법에 따라 포로로 대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되자 일제에 생명을 구걸하지 않겠다고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위국헌신(爲國獻身)은 군인본분(軍人本分)이라고 독립군의 사명을 분명히 밝히신 분입니다. 이와 같이 국민적인 존경을 받고 계신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봉오동전투 전승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더욱 보람을 느낍니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는 우원식 의원께서 이사장을 맡으신 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국민적인 숙원이었던 홍범도 장군 위해봉환은 양국 대통령 간에 합의를 이루었고, 홍범도장군 추모공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의 독립유공자 현창사업은 문관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는 독립운동의 전수인 무장투쟁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선 독립전쟁의 최고 영웅인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이 주축이 되도록 기념사업회가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2005년 기념사업회 창립 이후 13년 동안 이사장을 맡았던 입장에서 봉오동전투 전승 101주년 기념식을 맞아, 몇 가지 감회의 일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봉오동전투는 독립전쟁사상 일본 정규군과 싸워 이긴 최초의 승전입니다. 일본 19사단 75연대 월강 대대와와의 전투에서 봉오동 고지를 유인하여 매복전술로 일본군을 격퇴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독립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를 중요한 전승으로 기리고 있는데, 봉오동전투와는 그 규모나 성과, 파급효과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홍범도 장군은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장군은 겸손했고, 항상 자신보다 이름 없이 독립전쟁에 참여하고 지원했던 분들을 모두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봉오동전투에서 사용한 무기는 연해주에서 최재형 선생을 비롯한 동포들이 모금하여 체코군단의 무기를 구입하여 1,400여명의 동포들이 소총 1,800정, 기관총 60정, 박격포 2문, 실탄 80만 발을 등짐을 지고 험준한 산악으로 운반했던 것입니다. 우리 독립군이 사용한 모시나강 소총은 이때 무장한 것으로, 유효사거리는 460m으로 일본의 38식 소총 350m보다 더 우수했습니다. 이와 같이 홍범도 장군의 높은 뜻에 따라 독립전쟁에 참여한 이름 없는 모든 애국선열들을 함께 기리는 기념식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홍범도 장군은 정의감과 용기가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전함이 있습니다.”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원군이 해전에서 패배하여 100여 척의 전함이 침몰하여 일본군과 비교하여 전력상으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해전에 임하여 결국 승리했습니다. 홍범도 장군도 세계 최강의 일제와 비교하여 열세이지만, 독립에 대한 강인한 의지와 필승의 용기로 전투에 임하여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앞으로도 봉오동전투 전승기념행사는 홍범도 장군의 부하들에 대한 충정과 드높은 뜻을 받들어 독립전쟁에 참여한 이름 없는 독립군과 헌신적으로 지원했던 동포들을 기리는 국민화합과 호국외지를 선양하는 대단합의 국민축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축하에 가름합니다.

학술회의 참관기

잊힌 역사, 자유시참변을 기억하다

- 자유시참변 100주년 학술회의 참관기 -

김경준 한국외대 사학과 석사과정

자유시참변. 1921년 6월 28일, 러시아 자유시(스바보드니) 인근에서 한인 독립군 단체들 사이에 벌어진 유혈충돌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국독립운동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다. 참변이 벌어진 당시는 1920년 봉오동·청산리 전투의 승전으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독립군의 기세가 드높았던 때였다. 독립에 대한 자신감에 부풀어있던 우리 독립군과 한인 사회의 꿈을 꺾어놓았던 사건이기에 지금까지 우리는 이 비극의 역사를 애써 기억의 저편으로 밀어내려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로부터 꼭 100년이 지난 2021년 6월 28일, 자유시참변을 기억하고자 하는 뜻깊은 학술회의가 남산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렸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한국외대 디지털인문학학연구소·역사학연구소·전북대 고려인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의 취지는 자유시참변 100주년을 맞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한 번 제대로 자유시참변의 진상을 조명해보자는 것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제한된 인원만이 참석한 채 약식으로 진행됐지만, 온라인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중계를 실시한 덕분에 많은 시민들이 각자의 집에서 회의에 참관할 수 있었다. 그렇게 온·오프라인을 통해 쏟아지는 모두의 관심 속에 학술회의가 열렸다.

참변인가, 사변인가

학술회의는 ‘러시아 내전기 극동 지역 불세비키의 정책 갈등을 통해 본 자유시참변 재검토’(오세호), ‘자유시 집결 항일무장세력의 동향과 대응’(송영화), ‘1922년 자유시참변 1주년 논쟁’(주미희) 등 신진 역사학자들의 최신 연구 성과와 쟁점 발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가장 흥미로웠던 논쟁은 자유시참변의 정명(正名)을 두고 벌어진 논쟁이었다. 참변(慘變)인가? 사변(事變)인가?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여한 전북대 사학과 윤상원 교수는 “참변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학살을 당한 것과 같은 뉘앙스가 담겨있다. 자유시 사건은 한인 부대들 사이의 충돌이므로 사변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며 ‘사변론’을 제기했다.

반면에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오세호 연구원은 “참변은 ‘뜻밖에 당하는 끔찍하고 비참한 재앙이나 사고’를 의미한다. 물론 자유시참변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초기 한인사회주의 세력과 독립군 통합과정에서의 갈등, 극동 지역 볼셰비키 내부에서의 갈등 등을 고려한다면 뜻밖에 당하는 재앙이나 사고라고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한인들과 러시아 볼셰비키들 모두 유혈충돌의 발생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참변의 용어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참변이나 사변이냐에 대해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다. 자유시참변의 명칭을 두고 벌어진 논쟁을 지켜보면서, 명칭조차 아직 정립하지 못했을 만큼 우리 학계에서 자유시참변을 놓고 제대로 된 공론의 장을 펼쳐본 적이 없었구나 실감할 수 있었다.

그날의 원훈들 입장에서 매우 기쁘고 대견할 것

2시에 시작된 학술회의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7시가 다 되어서야 마무리됐다. “가벼운 집담회로 준비했는데 이렇게 끝장토론이 될 줄은 몰랐다”는 사회자(한국외대 사학과 반병률 교수)의 말처럼 현장의 분위기는 매우 뜨거웠다. 토론자로 나선 성균관대 사학과 임경석 교수는 이번 학술회의에 대한 의의를 이렇게 평가했다.

“자유시사변 100주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 의미와 아픔을 학술회의를 통해 되돌아보자고 기획해주신 점에 대해 주최 측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날의 원훈들 입장에서 보자면 얼마나 기쁘고 대견할까? 이 사안은 독립운동사 뿐만이 아니라 한국근대사를 체계화하는 데에서도 피할 수 없는 결절점을 이루고 있다고 느낀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자유시참변을 기억의 저편으로 밀어내고자 했다. 독립군끼리 서로 총부리를 겨눈 비극적인 사건은 쉬쉬하고 싶은 부끄러운 역사일 수도 있다. 무엇보다 분단 이데올로기로 인한 이념의 장벽도 의도적인 망각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 결과 자유시참변 당시 희생자의 수에 대해서도 36명인지, 303명인지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이번 학술회의는 무척 고무적이었다. 반병률 교수 역시 “이제는 자유시참변을 공론의 장으로 끌고 들어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사회도 민주화가 많이 됐다”며 의의를 부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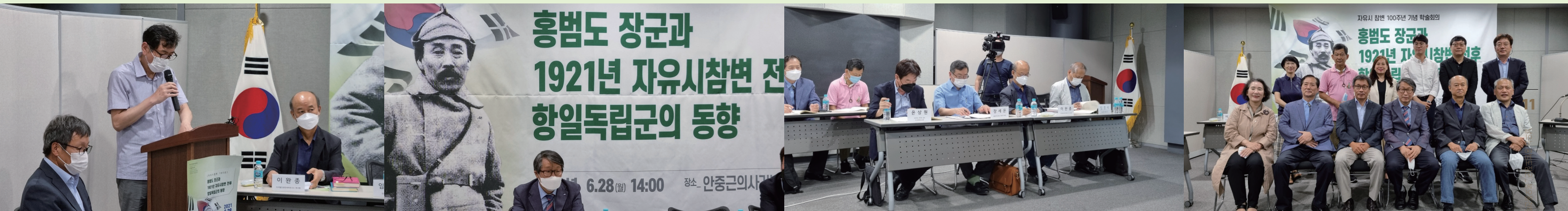
이제 막 학계에 발을 디딘 신진 역사학도인 나로서도 이번 학술회의를 참관하며 느끼는 바가 많았다. 특히나 그동안 교과서나 미디어를 통해 단편적으로만 이해해왔던 자유시참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자유시참변은 ‘군권쟁탈’이라는 단순한 문제로 이해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다.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아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진 사건이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남의 땅에서 총칼을 들고 싸우는 무장투쟁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더욱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동북아역사재단 장세운 명예연구위원의 평가가 가슴 아프게 다가왔다. 한편으로 이 비극의 역사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몰랐던 내 자신에 대한 반성과 함께 자유시참변 더 나아가 러시아 지역 한인독립운동사에 대해 더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자유시참변을 기억해야만 하는 까닭

자유시에 세워진 자유시참변 기념비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한다. ‘다시는 우리끼리 싸우는 일이 없기를...’ 자유시참변의 한복판에 휘말려 어제의 동지들을 자신의 손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홍범도 장군 역시 이 모순적인 상황에 남몰래 울며 탄식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누구보다 간절하게 바랐을 것이다.

부끄럽게도 우리는 해방된 조국에서 또 한 번 6.25 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해야만 했다. 그 결과 70여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남과 북으로 나뉜 채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자유시참변은 분단 조국을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에게 여전히 피 맺힌 교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는 그러한 비극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자유시참변의 역사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번 학술회의가 그 기억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기를 바란다. 📢



자유시 집결 항일무장세력의 동향과 대응

송영화 역사학연구소 연구원

자유시참변은 사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초기연구는 자유시참변을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의 분파투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그 외에도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의 사상적 차이 및 소비에트 측의 실책, 소비에트와 한인독립운동가들의 혁명에 대한 이해관계 차이에서 찾은 연구도 있다. 이 시기의 연구는 사건의 전체적 흐름과 그 상을 형성하였지만, 대체로 이르쿠츠크파의 입장인 자료적 제약으로 인해 사건의 다각적인 면을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중략)

본고는 자유시 집결 당시 항일무장운동세력의 동향과 대응 가운데 논점을 정리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에 제기되었던 논점, 근래의 연구경향을 참고하여, 가능하면 자유시참변 연구를 심화하고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자유시 집결 전후 니항부대 연구의 필요성

니항사건이 자유시참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이 사건을 연구하는 것이 자유시참변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할 것이라고 기대되기 때문이다. 니항군대가 소수의 박병길대(隊)와 다수의 박일리아대로 분열된 것은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의 대립이라는 이유보다는 빨치산 부대장 트라피친의 처형을 두고 상반된 입장 때문이었다. 이때 박병길은 찬성, 박일리아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들의 갈등은 자유시참변의 서막이었던 자유대대와 사할린대대의 알력에 이해의 한 고리를 제공한다. 자유대대가 박병길 등 트라피친 처형에 찬성했던 이들을 중용한 것에 대해 사할린대대는 “탈영자를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대해주는 배신적 행위로 이해”했다. 이후 박병길은 박일리아와 지속적 대립 끝에 사할린대대 측의 인물에 의해 암살되었다.

두 번째로 니항사건의 연구를 통해 1920년대 초 소·일 외교의 이해를 심화하여 소비에트 정부가 한인무장부대에 보이는 이중적 태도 또는 비밀관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니항사건은 “일본이 시베리아에 재출병하는 좋은 구실을 제공”하였으며, 연해주와 4월참변으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했다. 윤상원은 니항사건에서 트라피친의 ‘학살’행위에 대한 상반된 인식들을 소개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기반하여 니항사건이 과연 ‘학살’이었는지, 그 가운데 한인부대는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아울러 연구될 필요가 있다.

2. 희생자 집계 방식

기존의 연구들은 군정의회와 대한의용군(이하 의용군) 양측의 사상자가 크게 차이나는 이유를 의용군이 적극적으로 응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는 대체로 타당한 분석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여전히 의용군 측의 피해자 수가 자료마다 상이하다고 지적하는 것에 그쳤기 때문에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군정의회측의 피해는 자료마다 다르지만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연구들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그런데 의용군측의 피해상황은 자료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표 1>

결국 자유시참변에서 총병력 약 1420명 중, 사망자 약 270명, 포로 약 900명, 행방불명 약 250명 정도로 추산된다. 교전중에 사망한 경우만 집계할 경우 직접적 충격이 아니더라도 사건 자체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을 담아내지 못한다. 역사자나 추격 끝에 산중에서 힘이 다하여 죽은 자 등이 그러한 범주에 포함될 것이다. 행방불명을 사망자로 포함하고자 한 「성토문」이 지닌 자료적 한계는 비판적으로 바라보더라도, 보급의 단절 등 전투지역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죽음의 원인을 포괄해야 자유시참변에서 발생한 피해자를 규모를 합당하게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고려혁명군의 항일성

(중략) 기존의 논의를 통해 보면 고려혁명군이 사회주의 군대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항일’에 관해서는 기준을 어떻게 두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 만주출정의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극동공화국은 고려혁명군을 만주로 이동시킬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려혁명군은 일본과 직접적으로 전투할 기회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니항사건을 고려하면 극동공화국은 일본과의 직접적 충돌을 꺼릴 수밖에 없었고, 특히 당시 한창 진행중이었던 극동공화국과 일본의 ‘평화’회담인 대련회의를 의식하고 있었다. 즉 만주출정의 실현가능성은 애초부터 희박했다고 보아야 한다.

두 번째로 실질적 투쟁 대상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22년 연해주에서 전투를 수행한 한인부대들은 주로 백위파와 전투를 했다. 물론 당시 백위파와 일본은 동맹관계였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항일과 맥을 같이 하지만, 직접적으로 일본과 전투하는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극동공화국이 일본과의 외교에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는 점, 1922년 하반기에 이미 일본의 철병이 확실시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백위파에 저항하는 것이 반드시 항일로 직결되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구성원의 의지라는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려혁명군 상충지도부는 당장 만주로 이동할 의지는 없었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이동회가 고려혁명군을 이동시키고자 했으나 “불법적으로 이동시켜 그곳에서 민족주의 조류의 빨치산부대를 창설”한다는 죄목으로 항하일, 김 표도로, 채영, 이다물 등 16명을 재판에 회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히려 위와 같이 항일의지를 지닌 인물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한시적이나마 고려혁명군은 항일적 성격이 지녔다고 볼 수 있다. 📖

<표 1> 자료별 자유시참변 피해자 규모

근거자료	총병력	사망자			생존자		행방불명	
『재고려혁명군대연혁』	약 1000명	사망자(36)			포로(864)	불참(15)	도망(34)	행방(59)
『성토문』	약 1500명	교전(72)	익사(37)	산중(200)	포로(917)		행방불명(250명)	
『흑하사변의 진상3』	약 1400명	교전(40)	不知去處 기갈(?)	不知去處 마적(?)	포로(약 900)		不知去處(?)	
『조선민족운동연감』	1523명(단순합산)	전사자(272)		익사자(31)	포로(970)		행방불명(250)	
추산	1427명(단순합산)	277명			약 900명		약 250명	



학술회의 주제2 발표문

러시아 내전기 극동 지역 볼셰비키의 정책 갈등을 통해 본 자유시참변 재검토

오세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

1921년 6월 28일 ‘우리 독립운동사상 최대의 비극’이라고 일컬어지는 ‘자유시참변’이 일어났다. ‘자유시참변’은 100년이 지나는 오늘날까지 많은 연구자들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선구적인 노력에 의해 원인과 실상, 피해 규모에 대한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 덕분에 현재 우리는 ‘자유시참변’의 역사적 실상과 한국독립운동사에서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시참변’에 대한 연구성과는 각 교과서와 박물관의 전시해설에 활용되며 알려지고 있다.

현재 역사기관과 교과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자유시참변’에 대한 공통적인 특징은 ‘지휘권을 둘러싼 독립군 내부의 주도권 다툼’과 ‘일제의 압력을 받은 러시아측의 독립군 무력화를 위한 무장해제’를 자유시참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이다. ‘독립군들은 자유시의 독립군단인 대한의용군과 고려혁명군의 세력다툼의 와중에 갈등을 겪게 되었다. 게다가 일제의 압력을 받은 러시아측은 독립군을 무력화하기 위해 무장해제를 시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만주지역 독립군이 가담한 대한의용군과 고려혁명군 간에 대충돌이 일어났다’고 ‘자유시참변’의 원인을 전하고 있는 독립기념관의 해설 내용은 현재 역사기관과 교과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자유시참변’에 대한 서술 내용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시참변’의 원인을 단순히 ‘지휘권을 둘러싼 독립군 내부의 갈등’, 혹은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 공산당의 헤게모니 투쟁’에서 비롯된 ‘참변’으로 파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분명 이 역시 ‘자유시참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지만, 단순히 독립군 내부, 그리고 상해-이르쿠츠크파 공산당의 헤게모니 투쟁만을 ‘자유시참변’의 원인으로 본다면, 1921년 6월 28일 ‘자유시참변’을 둘러싼 복잡한 상황을 단편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자유시참변’과 초기 한국사회주의운동의 통합 실패 원인을 초기 한인사회주의 세력의 파벌투쟁과 이러한 파벌 세력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코민테른 대리인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 바라본 것은 이러한 잘못된 시각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한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초기 한인사회주의자 세력들은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 전략과 이데올로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지리적인 요건에 의해 파벌을 형성했고, 이들이 운동의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코민테른 대리인이 각 파벌의 상대적 역량의 차이와 입장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한 파벌의 세력을 무의식적으로 강화시킴에 따라, 분파주의를 심화시켰다고 파악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자유시참변’을 둘러싼 원인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고, 더 나아가 ‘자유시참변’이 마치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의 봉당정치를 ‘당파싸움’으로 단순화시켰던 논리마냥, 초기 한인사회주의 세력의 ‘파벌투쟁’의 일환이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자유시참변’의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일제의 압력을 받은 러시아측의 독립군 무력화를 위한 무장해제’에 대해서도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유시참변’의 본질을 ‘한인사회주의 그룹 양파의 대립이라기 보다는 한국혁명을 목표로 하는 이동휘계의 고려공산당과 러시아 국익을 우선시 하는 러시아공산당 사이의 대립’으로 파악하며, ‘한인독립군에 대한 무장해제는 소비에트의 외교정책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불가피한 현상’으로 파악한 시각이 있다. 러시아 내전 기간 중 소비에트 러시아의 외교정책에 주목한 해당 연구의 시각은 분명 ‘자유시참변’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내전 기간 중 소비에트 러시아, 즉 볼셰비키들의 조선문제에 대한 시각, 그리고 외교정책을 다소 단순화하지 않았는가 한다.

한편 ‘자유시참변’과 관련된 원인에 대하여 소비에트 러시아와 코민테른, 그리고 ‘소비에트 중앙과 지방 당국자 사이의 조선문제에 대한 태도가 시기와 책임자의 입장에 따라 유동적이고 차이를 보였다’는 지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 두 공산당의 한국혁명의 성격을 둘러싸고 발생한 정치사상의 차이를 면밀히 분석한 연구는 자유시참변을 둘러싼 소비에트 러시아 내부에서의 갈등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즉 러시아 내전 기간 중 ‘완충국’이었던 극동공화국 설립을 둘러싼 극동 지역 볼셰비키 내부 세력의 정치적 갈등과 군사작전에 대한 갈등, 그리고 이에 따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자유시참변’을 둘러싼 외부의 원인을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중략)

러시아 내전기 소비에트 러시아 극동 지역의 정치 상황은 급변하는 상황의 연속이었다. 극동 지역의 볼셰비키들은 ‘완충국’인 극동공화국의 설립과 유지에 대해 각자의 혁명성격론과 국가건설론을 두고 갈등했다. 그리고 이러한 극동 지역 볼셰비키 세력들의 정책 갈등은 그들과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있던 초기 한인사회주의 세력과의 깊은 관련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크라스노쇼코프의 ‘완충’ 정책에 반대하는 이르쿠츠크 주 혁명위원회와 지방위원회 세력들은 ‘민주주의 공화국 건설론’을 반대하고, 민족주의자들과의 협력을 거부하며, 이상적인 권력 형태로 극동 지역에서 ‘소비에트’를 즉시 건설하고자 했다. 반면 크라스노쇼코프와 ‘완충’ 정책을 찬성하는 세력들은 극동 지역의 특수한 상태를 고려해 ‘임시적’으로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 등 비볼셰비키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자들과도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극동 지역에서 군사□의 교적 위협이 제거될 때 까지, 소비에트 권력 건설 이전에 ‘임시적’으로 ‘민주주의 공화국 체제의 완충국’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극동 지역 볼셰비키들의 정책 갈등은 극동공화국의 유지 문제를 넘어, 동아시아 혁명 사업의 주도 문제로 이어졌다.

극동 지역 볼셰비키들의 정책 갈등은 군사전략에도 영향을 미쳤다. ‘완충국’과 ‘빨치산’을 활용한 극동공화국 인민혁명군 총사령관 에이헤의 군사전략은 1920년 10월 치타를 점령함으로써 그 성공적인 면모를 보였다. 그러나 시베리아국과 극동국의 반완충론 세력 등의 반발로 1921년에 들어서면서 에이헤의 군사전략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1921년 인민혁명군의 군사전략의 변화는 1921년 상반기에 진행된 한인무장부대의 통합과 관할문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물론 이러한 극동 지역 볼셰비키의 정책 갈등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완충’ 정책을 반대한 인물들의 면모를 보다 면밀하게 추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인무장부대 통합이 이뤄지고 있던 시기, 극동공화국 내각과 인민혁명군 내부의 변화과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유시참변 이전 초기 한인사회주의 세력과 한인무장부대들을 둘러싼 이러한 극동 지역, 그리고 소비에트 러시아의 정치□군사□경제적 상황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때, 자유시참변의 역사적 실체에 조금이나마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혁명성격론과 국가건설론을 둘러싼 한인사회주의 세력의 갈등은 자유시참변의 발발로 인해 통합에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이후 한국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사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채 미완의 문제로 남게 되었다. 📖

1922년 자유시참변 1주년 논쟁

주미희 한국외대 강사

1922년 6월 28일 발생한 자유시참변은 '아무르 사건', '흑하사변', '흑룡주 사건', '자유시 사건' 등의 여러 명칭으로 불리는 독립운동사상 최악의 비극적 사건이었다. 흑룡주 자유시에서 이르쿠츠크파의 고려군 정의회가 원동공화국 제2군단 제29연대의 지원을 받아 상해파의 한 인군대인 사할린 의용대를 무장해제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의 한국 독립군들이 살상을 당한 대사건이었다.

자유시참변에 대해 적지 않은 연구가 축적되었다. 러시아 지역 한인 독립운동사 안에서 고찰되거나 한인 사회주의 민족운동사 안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초기 연구자인 서대숙은 1920년부터 1924년까지는 사회주의 독립운동의 양측을 담당했던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의 권력투쟁 시기였으며, 양파간의 최초의 무력 충돌인 자유시참변은 상해파와 이동회의 패배라고 평가했다. 스칼라피노와 이정식은 양파의 대립 속에서 자유시 참변으로 인해 상해파는 축소되고 대한국민의회는 심각한 내분에 빠졌으며, 두 파가 가진 민족주의적 성향으로 인해 러시아 정책과는 전면적으로 결합될 수 없었음을 지적한다. 김창순과 김준엽은 이르쿠츠크파와 상해파의 군통수권 투쟁으로 인해 자유시참변이 발생되었으며, 결과적으로는 친로파와 준공산주의 독립운동 세력인 상해파의 몰락으로 보았다.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는 소비에트 러시아 정책과 한인 독립군 부대 통합과정의 연관성에 주목하면서 자유시참변을 한인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의 갈등뿐만 아니라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의 커다란 범주 안에서 보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자유시참변 직전 러시아 정책과 한인독립운동의 연관성에 주목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자유시참변에 대한 전체적인 사실적 부분들과 전후 맥락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다.

그렇지만 자유시참변에 대해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의 대립과 결과라는 단선적인 시각이 주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러시아 정책과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 중 어느 쪽이 더 책임이 있는가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한국 독립운동사(史)상에서 자유시참변이 어떠한 사건인 것인가에 대해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지원을 통해 한국 독립을 실현할 독립적인 기구와 독립군 부대를 조직하려는 상해파와 소비에트 러시아의 세계혁명 수행이라는 틀 안에서 한국 독립을 바라보고 있는 이르쿠츠크파 간의 차이점에 대해 폭넓은 사려가 요구되어 진다. 자유시참변의 1주년 논쟁에 대한 고찰은 이 사건의 시시비비와 책임론을 떠나 식민지 피압박 민족운동 하에 진행된 해외 한인들의 독립운동과 노선에 대한 의미를 고찰하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

(중략)

『독립신문』 5월 6일, 5월 20일, 5월 27일, 6월 3일자에는 김경재의 〈흑하사변의 진상〉이란 독립신문의 위임을 받은 이가 자유시참변의 발생 장소로 가서 비교적 공정하고 상세하게 조사하여 보낸 원고를 정리해서 게재했다. 자유시참변을 목도한 사실을 일려준 적파(赤波)선상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 있다. 연재된 기사는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의 관계, 원동공화국 한인부의 성립, 치타와 고려군정의회간의 관계, 사할린의용대의 불복종, 고려군정의회의 무장해제 결정, 골육상쟁의 참상과 결과로 구성되어 있다.

김경재는 자유시참변의 전과(前過)를 회오(悔悟)하지 못하는 듯하여 부득이하게 비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김경재는 자유시참변을 불러일으킨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김경재는 사할린부대가 김하석, 오하목, 최고려를 불신임하는 이유로 이들이 대한국민의회에서 간부를 할 때부터 상호간 반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르쿠츠크시에서 대표회가 개최되었을 때 사할린부대 대표들에게는 참석을 허용치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비열'과 '추태'의 행위를 보인 이르쿠츠크파를 비판하고 있다. 거듭해서 고려군정의회가 다수의 군의(軍議)을 무시하고 군중 앞에서 김하석, 오하목, 최고려를 진정한 혁명자로 변명(辨明)해 주고 두호(杜護)해 준 것을 지적하고 있다.

(중략)

자유시참변 논쟁을 거치면서 우위를 점했던 상해파는 베르흐네우진스크 대회와 국민대표회의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없었다. 한국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소비에트 러시아의 지원과 지원을 얻으려 했던 상해파와 러시아 내의 공산주의 한 부분이 되려했던 러시아화 된 한인들인 이르쿠츠크파 간에는 상당한 간격이 존재했다. 동아시아 민족해방운동이 코민테른 하에서 작동되면서 코민테른과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는 상해파나 이르쿠츠크파에게 중요했다. 불세비즘의 보편화라는 기치아래 진행된 코민테른의 정책과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코민테른의 담당자들의 이견 역시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자유시참변 논쟁은 다수를 통해 한국독립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한 상해파의 전술이라 평가될 수 있다. 그렇지만 상해파의 정치 혹은 독립운동의 시각에서 면밀히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상해파가 자유시참변 논쟁과 베르흐네우진스크 대회, 국민대표회의를 지나오면서 한국독립운동에 대해 어떤 실천을 하려고 했는지, 이르쿠츠크파와 대립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좀 더 주목되어야 한다. 파쟁과 파벌이 많았다는 것은 한편으로 사상과 정견이 다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상해파가 주도한 베르흐네우진스크 대회는 하나의 공산당을 조직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대표회의는 한국독립운동의 최고기관을 조직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절호의 기회였는지도 모른다. 이것이 상해파의 궤적과 동일하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민족해방과 사회주의 혁명이 식민지 지배를 직접 받고 있는 나라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한국처럼 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엔 더욱 그렇다.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의 대립으로 인한 분열과 실패라는 시각을 넘어 노선과 정책의 대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각각 국내, 국외 민족주의자들과 어떤 지점에서 결합되었는지, 그리고 왜 하나가 되지 못하였는가에 대해 한국독립운동의 커다란 범주 안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❶



홍범도 장군과 1921년 자유시참변 전후 항일독립군의 동향

반병률 한국외대 사학과 교수

I.

한국근현대사에는 역사적 의의나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분단과 냉전체제로 인하여 '금기'시되거나 제대로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연구주제들이 많다. 자유시 참변 역시 그러한 주제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올해는 100년 전 1921년 6월 28일 당시 '완충국가(buffer state)로 성립되어 있던 원동공화국 영내의 아무르주 자유시에서 일어났던 자유시 참변 100주년이다. 이번의 학술회의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투쟁하다 먼 이역 땅에서 희생되어 불귀의 객이 되어버린 독립군들의 넋을 기리고자 하는 뜻에서 기획되었다. 자유시참변을 주제로 한 순수한 학술적인 모임으로서 이번의 학술회의가 처음이 아닌가 한다.

자유시 참변 자체는 짧게는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4시간 30분 만에 현장에서 종결되었고, 도망자 체포 등 사후 처리까지는 약 9시간이 걸린 사건이다. 참변 당시의 희생자는 사건 당시의 입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가해자측(러시아측)은 사망 36명, 행방불명 60명, 포로 860명이라 발표하였고, 피해자측은 피살 72명, 익사 37명, 기병추격(제야강에 수장) 200여 명, 행방불명 250여 명 등 희생자 600여 명, 포로 917명이라고 주장하였다. 자유시참변은 피해 규모를 포함하여 참변의 원인과 배경, 그 경과와 영향에 관하여 다양한 자료의 작성주체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을 만큼 매우 논쟁적이며, 심지어는 대립적, 충돌적인 해석과 평가를 낳고 있는 사건이다.

3·1운동 이후 임시정부가 1920년을 '독립전쟁의 원년'으로 선포한바 있다. 1920년 하반기이래 1921년 상반기에 이르기까지 자유시에는 북간도에서 봉오동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치루고 온 독립군부대, 연해주 북부, 사할린주, 아무르주에서 일본군이 후원하고 있던 백위파를 상대로 투쟁하던 항일빨찌산부대들, 소비에트러시아의 이르쿠츠크에서 결성된 합동민족연대 등 약 3천 5백 명의 병력이 집결하였다. 자유시 참변은 원동공화국이라는 남의 영토에서 주둔하고 있던 한인무장병

력의 통합과 지휘권 등 여러 쟁점을 둘러싸고 벌어졌다는 점에서, 한국 독립운동사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다. 자유시 참변은 그 후유증으로 이후의 항일무장투쟁이 오랫동안 침체기를 겪어야 했고 1920년 중후반에 가서야 겨우 그 기력을 회복할 정도로 그 타격이 지대했던 역사적 사건이다. 그동안 자유시참변은 주로 한국공산주의운동사에서 다루어져 왔던 관계로 이념적 잣대에 따른 해석과 평가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주제였다. 이번의 학술회의는 한편으로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측 자료를 활용한 연구성과들을 정리·평가하고, 새로운 연구과제들을 모색해 보자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발표는 향후 역사학계에서 활동이 기대되는 박사과정의 신진학자들에게 부탁하였고, 토론은 이 분야에서 연구성과를 내고 있는 중견학자들을 초청하였다.

II.

첫 번째 발표 주제 「자유시 집결 항일무장세력의 동향과 대응」에서 발표자는 자유시참변의 원인을 규명하고 소비에트와 일본간의 외교관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하여 니항군대(사할린군대)의 분열에 대한 연구가 더 진척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실 니항사건의 전개나, 원동공화국에 의한 트라삐진 일당의 처형(1920년 7월 25일) 과정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일본의 학계에서 연구가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국학계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트라삐진 군대내의 한인군대 박일리아(다수파)와 박와실리(소수파)간의 니항사건과 트라삐진의 활동과 그 일당 재판(처형)에 대한 입장의 차이와 대립 관계를 여러 각도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발표자의 제언은 경청할 만하다.

이에 더하여 발표자는 윤상원 교수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자유시 부근 한인무장부대들이 식량 조달과정에서 현지 주민들과의 갈등을 겪는 등 한인무장부대가 겪은 '정치적 장벽'만이 아니라 '경제적 장벽'에도 주목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인무장부대들이 주둔했던 지역의 다양한 환경이나 조건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제언이라고 본다.

발표자는 그동안 선행연구자들의 자유시참변 '희생자 집계 방식'에 대하여 비판적인 문제 의식을 갖고 기존 자료들을 종합하여 나름의 피해자 규모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측의 총병력 1,420명, 사망 약 270명, 포로 약 900명, 행방불명 약 250명이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임경석 교수는 이에 대하여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근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좀더 천착할 것을 조언하였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자료들을 비판적으로 활용할 경우 좀 더 설득력있는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1922년에 1주년을 계기로 북간도의 국민회, 신민단 등 11개 단체에서 발표한 「성토문」에서 '기병추격'으로 사망하였다는 200여 명은, 인민혁명군 제2군사령관 소리셰프 등의 보고서에서 '강을 따라 내려가 바르다곤 쪽으로 간 한인부대는 기병중대에 돌미를 잡혔고, 제야강에 수장(水葬)된 듯하다'는 바로 그 한인병사들을 말한다. 이 한인부대는 '2개 중대'라 하였은바(제29연대장 말라호프와 고려혁명군정의회 총사령관 칼란다라쉬빌리의 보고), 희생자는 약 2~300명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경우, 희생자는 최소 3~4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당시 수라셉카 마을에 집결해 있던 사할린특립의용대의 병력, 즉 마지막까지 무장해제에 저항했던 병력수 산정에서, 가해자측은 1,000명으로(참변 당시 수습한 고려혁명군 전권대표 오홀라의 보고), 피해자측은 1,500여 명으로 산정하였다. 무장해제 대상 병력에서 500명의 차이가 있는 만큼, 이로부터 피해 규모, 특히 피살자(사망자)의 숫자에 최소 4~500명의 차이를 가져온다. 4~500명을 포함하게 되면, 사망자는 600명이 되고, 500명을 빼게 되면 100명 정도로 양측이 산정하는 피해 규모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사건 직후 제2군사령관 쇼로셰프 등 간부들은 '수라제프카 부락에 진을 치고 있는 1,500명에 육박하는 한인부대'라고 보고하였다. 발표에서는 활용되지 않았지만, 고려혁명군 전권대표 오홀라의 보고에는 현장 사망 36명, 행방불명 60명, 최종무장해제(포로) 860명이었다. 이 포로수는 제야강의 섬으로 도망한 자 300명과 묘지로 도피한 300명, 총 600명이 포함된 숫자이다.(제29연대장 말라호프와 칼란다라쉬빌리 보고).

진압자인 고려혁명군정의회측은 특별조사위원회(임시조사부)를 조직하여 포로 860명을 심문하였다. 이 가운데 360명(최진동과 허근의 총군부 군대)은 무죄석방, 나머지 500명은 재차 심사하여 '중대범죄' 장교와 군인 72명은 이르쿠츠크로 압송, 나머지 428명은 원동공화국정부 제2군단에 인도하여 우수문 목재노동소로 강제노역을 보냈다(이들은 1922년 8월에야 석방된다).

한편, 이완종박사는 "극동공화국은 고려혁명군을 만주로 이동시킬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발표자의 견해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인민혁명군 총사령관 에이헤가 제2군사령관 파블로프에게 보낸 전문에서 고려혁명군정의회 사령관인 칼란다라쉬빌리가 자유시로 올 것이며 '사할린부대는 작전을 위해 만주를 거쳐 한국으로 갈 것이다'라는 구절에 근거한 것이다.

한인무장세력의 만주로의 진출은 사실상, 연해주까지 소비에트화(일본군이 철수하거나 격퇴된)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일본군이 연해주를 점령하고 있는 한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만주를 거쳐 한반도로 진격한다'는 슈미야츠키의 주장은 실행가능성이 없는 단순한 레토릭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것이 슈미야츠키나 고려혁명군의 항일성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슈미야츠키의 입장은 한인빨찌산병력이 원동공화국 영내로부터 벗어나 소비에트러시아 영역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크라스노쇼코프의 입장과 대립되는 것이다. 슈미야츠키의 급진론은 북간도에서 이동한 간도 독립군 지도자들이 고려군정의회(고려혁명군)측에 동의하고 가담한 이유의 하나일 것이다. 일본군과 직접 전투를 치러본 홍범도, 이청천, 최진동, 안무 등 독립군들은 이러한 슈미야츠키의 주장에 현혹되었다고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용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장세윤 박사가 토론과정에서 소개한 의군부의 허근과 이병채의 1921년 10월 25일자 ‘보고서’는 그러한 맥락에서 나온 문건이라 할 수 있다. 간도 독립군 지도자들이 이러한 슈미야츠키의 노선이 단순한 레토릭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이르쿠츠크에 간 후였고, 그 결과로 이청천과 채영 등이 이르쿠츠크에서 원동을 나가려고 시도하였다가 ‘군율위반’으로 감금된 사건은 이러한 상황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Ⅲ.

두 번 째 발표 「러시아 내전기 극동지역 볼셰비키의 정책 갈등을 통해 본 자유시참변 재검토」는 ‘완중국이었던 극동공화국 설립을 둘러싼 극동지역 볼셰비키 내부 세력의 정치적 갈등과 군사작전에 대한 갈등, 그리고 이에 따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자유시참변을 둘러싼 외부의 원인’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 논문이다.

이를 위하여 ‘완중국 설립을 둘러싼 내부의 정책 갈등 양상’과 ‘인민혁명군 총사령관 에이헤의 군사전략’을 분석하였다. 발표 준비시간의 부족으로 ‘완충정책을 반대한 인물들의 면모’를 밝히고 ‘극동공화국 내 각과 인민혁명군 내부의 변화과정’을 추적하는 것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였다.

“완충국가안(원동공화국안)이 멘셰비키 아흐마토프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는 발표자의 주장에 대하여, 이완종박사는 ‘시베리아국(시비부로)의 스미르노프와 크라스노쇼코프가 처음으로 제기했다’는 기록을 제시하였다. 사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임경석 교수는 “볼셰비키와 한인 사회주의 세력 간의 관계가 어떤 성격을 띠는가?라며, 양자의 ‘관계성’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본문에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서 임교수는 “지방당 간부가 당중앙의 (완충)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또 강력하게 수행할 수 있었는지 이유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며, 러시아지방사 연구성과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발표자가 향후 과제로 제시한바 ‘완충정책을 반대한 인물들의 면모’를 밝히는 작업에서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임교수는 이어서 “러시아당과 군대 내부에 완충 문제를 둘러싸고 알력이 있었던 것처럼, 코민테른에서도 두 가지 흐름이 있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인민혁명군 총사령관 에이헤의 군사전략을 분석한 것은 한인무장세력의 위상에 대한 원동공화국 군책임자의 정책 경향을 밝혔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당의 군에 대한 우위를 원칙으로 하는 사회주의체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군지도자 보다는 볼셰비키당 지도자들의 군사정책, 특히 한인무장세력에 대한 입장을 추적하는 작업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국제공산당(코민테른)내에 두 가지 경향(완충국론과 반완충국론)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일반적 견해(임경석, 윤상원)와 관련해서는 이르쿠츠크파의 절대적 옹호자로 자유시 참변의 사실상 책임자인 슈미야츠키가 한인무장세력에 대한 권한을 장악하게 되는 과정에 대하여 주목할 경우 이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1921년 4월 슈미야츠키는 사할린특립의용대와 그 정치적 지도기관인 러시아공산당 중앙위 산하 원동부(달이부로) 소속 한인부의 간부(박애, 장도정, 계봉우 등)을 체포하여 재판에 회부하고, 사할린특립의용대 등 한인무장세력의 관할권을 원동공화국 인민혁명군에서 소비에트러시아 적군 제5군 관할로 옮길 것(1921년 4월 23일)을 명령한 바로 그 인물이다.

따라서 국제공산당 내부에서 두 가지 흐름이 각축하다가 한 흐름이 승리했다기 보다는, 반완충국론자이며 강경파인 슈미야츠키가 러시아공산당 중앙위 산하 시베리아국(시비부로) 소속의 ‘동양제민족부’를 세력 기반으로 1921년 1월 새로이 창설된 국제공산당 동양비서부(원동비서부)를 장악하게 되는 과정으로 설명하는 편이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자유시참변은 동양비서부장 슈미야츠키가 원동지역의 당·군·정에 관한 독점적 권한을 일방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사건이었다.

Ⅳ.

세 번째 발표에서 「1922년 자유시참변 1주년 논쟁」은 1922년 자유시참변 1주년을 전후로 하여 그 책임을 둘러싸고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국민의회파간에 전개된 논쟁의 배경과 이유 그 결과를 분석한 논문이다. 이 논쟁이 그해 가을 예정된 고려공산당 연합대회(베르흐네우진스크 대회)와 국민대표회의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자유시참변의 피해자인 상해파가 제기함으로써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발표자는 “자유시참변 논쟁은 다수를 통해 한국독립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한 상해파의 전술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상해파는 논쟁 과정에서 우위를 점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대회에서 소기의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발표자가 “상해파는 한국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소비에트러시아의 지원과 지원을 얻으려 했고, 이르쿠츠크파는 러시아내의 공산주의 한 부분이 되려 했던 러시아화 한인들이었다”고 평가한 데 대하여 이완종 박사가 이의를 제기했다. 그 근거는 ‘이르쿠츠크파와 상해파 인사들 모두 공산주의로 위장한 민족주의자들’이라고 평가한 1935년에 작성된 보고서였다. 이는 1935년이라는 시점에 주목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인공산주의자들에 대하여 파벌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숙청을 자행하고 있던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발표자가 홍범도가 중립에서 친고려혁명군쪽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한 데 대하여, 임경석 교수는 “홍범도의 행동에 내재하는 원인을 탐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홍범도 뿐만 아니라 북간도 독립군의 행적과 그 이유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문제제기라 할 수 있다. 산발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홍범도가 어떠한 이유로 자유시참변 당시에 고려혁명군측에 가담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선 홍범도가 사할린군대(니항군대), 다반군대, 이만군대, 독립단군대 등 연해주와 아무르주, 사할린주에서 활동하던 한인빨찌산들과 다른 경험을 갖고 있었다. 박일리아가 이끄는 사할린군대측이 대한국민의회의 과거 반혁명 활동(파리강화회의 지향, 국제공산당 반대), 그 주요인물인 김하석, 오하묵, 최고려 등의 ‘반혁명 활동’에 대해서도 상해파나 한인빨찌산들 보다 그 적개심이 덜하였을 것이다.

한편, 홍범도는 또한 항일무장투쟁을 이끌어갈 강력한 중앙기관의 필요성을 절감했을 것이다. 1920년 봉오동, 청산리 전투를 경험하면서 홍범도는 임시정부 역할의 한계를 깨달았을 것이며, 1921년 1월 국무총리 이동휘의 상해임정 탈퇴는 홍범도의 그러한 인식을 확신케 했을 것이다. 홍범도는 1920년 8월 12일 국민회의 대한국민군 창설(사령관 안무)로 국민회, 나아가 이동휘의 상해임시정부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던 것이 분명하다. 청산리전투를 전후로 하여 홍범도가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와 연합을 추진했던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V.

자유시참변 당시 진압병력은 인민혁명군 제2군 제29연대 1,000명과 고려혁명군정의회 의장겸 총사령관 칼란다라쉬빌리가 이끄는 500명, 기병 1개 중대, 2대의 장갑차 등이었다(제2군 사령관 소리셰프 등이 인민혁명군 총사령관에게 보낸 「자유시 지역의 사태에 관한 보고」).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칼란다라쉬빌리가 이끌었다고 하는 500명의 성분에 관한 문제이다. 이 500명은 바로 칼란다라쉬빌리가 이르쿠츠크에서 인솔해온 ‘자바이칼기병대(코카서스 기병연대)’ 564명이라고 추정된다. 진압군 지휘부의 입장에서 ‘사할린특립의용대’에서 자유시로 넘어온 간도 독립군(홍범도, 안무 부대, 590명)이나, 자유시보병특립대대(자유대대, 355명)는 물론, 칼란다라쉬빌리가 인솔해온 고려혁명군정의회 소속 합동민족연대(373명)의 한인군인들은 가능한 한 무장해제 작전에 투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자유시참변 당시 진압병력은 인민혁명군 소속의 러시아인, 칼란다라쉬빌리의 자바이칼기병대 소속의 그루지아인(Georgian)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은 자유시참변 현장에 있었던 생존자들의 증언을 종합한 이인섭의 회상록에서, 당시 ‘사할린특립의용대’를 진압한 병사들을 ‘그루지아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에 주목한 결과이다. 설사 한인장교나 병사들을 진압과정에 투입했다고 하더라도 통역, 안내, 전장 소제 등의 지원·보조적 업무에 참여케 했을 것이며, 직접적인 무장진압(총격전)에 참여케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인군인들의 직접참여 여부 문제는 학술회의 토론과정에서 제기되었으나, 한인병사들의 참여가 당연하였을 것이라는 일반화된 선입견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로 이어지지 못하고 논의가 더 진전되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보면, 부분적으로라도 자유시참변은 ‘한인무장세력간의 무력충돌’이라기 보다는 러시아측(인민혁명군 제29연대와 칼란다라시빌리 기병대)이 한인무장세력(사할린특립의용대)을 일방적으로 무장해제(진압)한 사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점은 러시아측 제2군사령관(소리코프) 군정치위원(멜니코프) 군참모장(쉬코미)의 사건보고서에서, ‘폭동을 진압할 때 전사한 인민군 병사 한 명은 한인-파총류 수천명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바, ‘폭동’, ‘파총류’ 등의 표현은 놀랄만한 것이다.

어떻게 하여 이들 인민혁명군 간부들을 포함하여 러시아측 혁명가(볼셰비키)들이 한인독립군을 ‘뜨라베진’일당과 같은 부류로 인식하고 마땅히 진압 또는 제거해야할 범죄자로 보는 인식을 갖게 되었을까. 짐작컨대 이는 다분히 자유대대나 고려혁명군정의회내의 한인들(오하묵, 최고려, 김하석)이 제공한 왜곡된 정보에 따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에서 고려공산당 이르쿠츠크파=대한국민의회파 간부들에게 자유시참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자유시참변의 책임은 제1차적으로 무장해제(진압)한 러시아측에 있지만, 이에 못지 않게 러시아측의 당·군의 지도자들이 한인독립군들이 ‘백위파’ 내지 ‘반혁명파’라는 인식을 갖고 무력진압에 나서게 만든 것은 이르쿠츠크파 인물들이었다고 할 것이다. 물론 동료 독립군들로 하여금 희생당할 수 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에 빠뜨리게 만든 박일리아 등 ‘사할린특립의용대’측 지도자들의 대책없는 저항에도 일단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지만, 이는 부차적이라 할 것이다.

이번의 학술회의를 통해서 고려혁명군과 사할린특립의용대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점을 확인한 것이 큰 성과라고 하는 임경석 교수의 지적은 매우 적절하다. ‘고려혁명군은 원동공화국의 정규군 부대인 인민혁명군의 일원이 되는 것’을 지향했고, 사할린특립의용대 즉, ‘대한의용군은 비정규전을 수행하는 한인의용병(빨치산)의 부대’로 그 성격이 달랐다는 것이다. 대한의용군의 경우, 그 지도자의 한 사람인 이용의 말, 즉 “비록 러시아사령부의 지휘를 받고 군수의 원조를 받았으나 명칭이 대한의용군대로 의병식이었음으로 어디까지든지 러시아인의 명령을 절대 복종할 바가 아니었다”에 근거한 것이다. ‘한국의 독자성을 유지한 비정규전 빨치산 부대 즉, 의병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전망을 가진 군대라는 것이다.

이 점은 사실관계에서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사할린특립의용대나 자유시독립보병대대는 모두 처음에는 각자의 청원에 의해서 인민혁명군에 소속되었다. 완전한 독립적 위상이 아니라, 둘 다 ‘특립’, ‘독립’ 등의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인민혁명군에 소속되지만 인민혁명군 총사령부의 전반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으면서, 부대 차원의 제한된 독립적인 지휘체계를 추구하였던 것이다.

현실적으로 러시아혁명정부의 군사적, 행정적, 군수물자 제공 등을 받는 상태에서 대등하게 완전한 독립적 위상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다만 완충국가인 원동공화국 정부는 현실적으로 자기 영토내에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이나 일본군 철수 거부(계속 주둔)의 명분을 주지 않고, 한인무장세력이 인민혁명군의 공식적인 군대가 아니라는 명분(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특립’, ‘독립’ 등의 명칭을 넣은 것이다. 이는 앞서 니항사건(1차 1920년 3월, 2차 5월)을 명분으로 일본이 시베리아 ‘출병’을 강화하고 복사할린 점령(1925년 5월 철병)을 감행한 뼈아픈 경험을 겪었던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지켜야 할 정책이었다.

1921년 4월 당시 전체 한인무장세력을 결집하고 있던 사할린특립의용대는 그 지휘권이 원동공화국 인민혁명군(하바롭스크 본부)로부터 소비에트러시아 적군 제5군(이르쿠츠크 본부)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자유시참변으로 사실상 해체되었고, 진압자측인 고려혁명군이 이르쿠츠크로 이동하면서, 러시아혁명세력의 지원과 협력으로 항일무장투쟁을 이끌어나가고자 했던 독립군들의 꿈은 좌절되고 만다.

이러한 고려혁명군과 달리 자유시참변의 현장을 빠져나와 살아남은 사할린특립의용대 소속 대원들은 1921년 하반기이후 1922년 10월에 이르는 원동해방전쟁에서 많은 희생을 치르며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된다. 역설치고는 너무나 뼈아픈 역사가 아닐 수 없다. 

“조선의 독립은 세계의 대세요, 신의 뜻이요, 한민족의 각성이다!”

- 몽양 여운형 생가 기념관을 찾아서 -

정이숙 카피라이터

집안의 노비를 모두 불러모아 노비문서를 불태운 뒤 자유인이 되게 했던 혁명가. 대한민국 최초의 야구팀인 YMCA 야구부 주장(추정)이었던 체육인.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아 학교를 세우고, 본인 또한 신학문을 배우는 일에 앞장섰던 선구자. 일본의 인사들도 감동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던 명연설가. 일본이 아닌 동족의 총탄에 스러진 아까운 영웅…… 바로 몽양 여운형 선생이다.

선생은 일제 강점기와 광복 후에 활동한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이다. 초당익숙을 세우고, 신한청년당을 발기하고 한국의 사정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해방 후에는 독립 국가 건설과 좌우 합작 운동에 힘썼다. 그러나 극좌 극우 양측으로부터 소외 당한 채 좌우합작운동을 추진하던 중 극우파 한지근에 의하여 1947년 암살되었다. 공산당원이었다는 이유로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공이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 하고 있다가 2005년이 되어서야 건국훈장 대통령장, 2008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2011년 11월 27일 개관한 몽양여운형생가 기념관을 찾았다. 기념관은 양평 그의 생가터에 자리잡고 있었다.

1715년(숙종 41년)에 지어진 생가는 선생이 1886년 출생해서 부친 탈상을 끝낸 뒤 서울로 이사 간 1908년까지 사신 곳이다. 6.25 전쟁 중에 소실되었다가 2001년 양평 군민들의 노력으로 생가 터가 정비되었고 이듬해 기념비가 건립되었다. 2008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된 것을 계기로 서거 64주년인 2011년 생가가 복원되었다.

위인들의 박물관이나 기념관에 갈 때마다 늘 비슷한 모습을 만나게 된다. 일대기를 써 붙이고, 사진 화보를 패널로 만들어 전시하고, 유리로 막은 전시대 안에 여러가지 기념품이나 유품, 기록 등을 넣어둔다. 생가나 인물이 지내던 방, 특정한 사건을 모형으로 만들어 전시한다. 간혹 기념 영상을 만들어 상영하는 경우도 있다. 거의 예외없이 일대기, 사진 패널, 기념물, 모형, 영상물로 구성되어 있다. 몽양 기념관도 마찬가지였다. 영상으로 된 전시물은 하나도 없어서 먼 길 찾아가서 둘러보는데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외부에 풍광 좋은 공원이 있었는데 인적이 드문 곳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 할 것 같아 아쉬웠다.

여러 기념관을 볼수록 기계적인 구성에 답답한 마음이 든다. 놀이공원처럼 여러가지 재미있는 체험을 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 어린이들이 가서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독립지사들을 생생하게 만나고 그들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기념관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까?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고, 빌보드 차트 1위에 노래를 올리는 문화역량을 가진 민족이니 못 할 리는 없을 것이다. 다만 비용과 관심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깨끗하고 잘 정리되어 있지만 재미는 없는, 두 번은 가게 되지 않는 기념관 말고 자주 가고 싶고 그 곳에서 기념하는 인물과 교감할 수 있는 기념관이 생겼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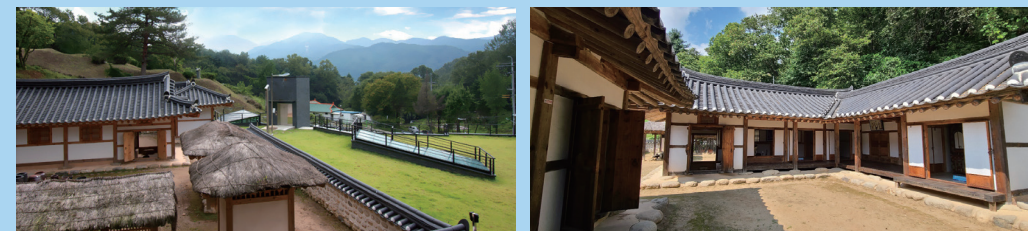
여운형 선생의 기념관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관람객이 많이 줄었다고 한다. 학교의 단체 관람이 없어져서 그렇단다. 11월에 새로 꾸며 문을 열 예정인데 그 때는 영상 상영관도 만들 것이라니 지금보다는 덜 심심한 곳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 📷



건축현황 위치 양서면 몽양길 66번지 부지면적 2,579㎡ 연면적 1,055㎡ 층수 지하1층, 지상1층
시설현황 지하1층 몽양기념관 (939㎡) 지상1층 생가 (106㎡) 외부시설 몽양어록길, 쉼터

"조선의 독립은 세계의 대세요, 신의 뜻이요, 한민족의 각성이다.
우리가 건설하려는 국가는
인민이 주인이 되어 인민을 다스리는 국가일 것이다.
이 민주공화국은 대한민족의 절대적 요구요, 세계 대세의 요구다."

1919년11월 27일 도쿄제국호텔에서 하신 여운형 선생 연설문 중에서



남한산성 답사기

2021. 5. 15.(토)

봄비가 내리던 날

강석령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에서는 올해부터 조국의 광복을 위해 피 흘린 독립 선열들의 유적지와 기념관을 탐방하고 함께 미래를 조명해 보는 '역사와 미래 탐사대'를 발족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는 수유리 독립운동가 묘역을 탐사하였고, 2차 탐사에서는 남한산성을 답사하였습니다. 강석령 회원의 남한산성 답사기와 이날 탐사를 함께한 중국동포 박휘봉 '금력영자' 지사장의 한시를 신습니다. 앞으로도 '역사와 미래 탐사대'와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이번이 남한산성 초행길은 아니다. 이제까지의 남한산성은 대개 친한 이들과 음식을 나누거나 가족끼리 간단하게 나들이할 때 떠올리는 여러 장소 중의 하나였다. 이번 답사길도 크게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었으나, 홍범도 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공식적인 행사이고 바우 손병우 선생을 가이드로 모시기까지 했으니 이전과 마음가짐이 같을 수는 없었다.

그날 나는 약속 장소를 잘못 알아서 남한산성입구역에서 10분이나 헛되이 기다렸다. 산성역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걸 확인까지 해놓고도 두 역 이름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매사에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내 성격은 이 나이가 되어서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 모양이다.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는 말은 있지만, 성격이 꼼꼼하지 못해서 몸이 고생한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아마도 나는 후자에 해당하지 않나 생각한다. 혹은 둘 다에 해당하는지도 모르겠다.

기다리다 먼저 출발한 일행을 뒤따라 버스를 타고 허겁지겁 남한산성 주차장에 내리니 손바우 선생의 인사말과 기초 설명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내용의 해박함이야 접어둔다 쳐도, 비오는 중에도 연신 얼굴을 닦으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을 담박에 느낄 수 있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역사적 유물이 풍부한 곳이지만, 간혹 남한산성에 들 때도 행궁에 들어간 적이 없을 정도로 그 유물들을 제대로 살펴본 적은 없었다. 이번에 남한산성 광주행궁을 자세히 들여다 볼 기회를 갖게 되어 마음의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다.



유네스코는 남한산성 일대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이유로, 행궁에 대해서는 조선의 자주·독립의 수호를 위해 유사시 임시 수도로 축조된 유일한 산성도시인 점, 산성에 대해서는 동아시아지역의 무기발달과 축성술이 상호 교류한 군사유산이며, 자연지형을 활용해 성곽과 방어시설을 구축함으로써 7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축성술의 시대별 발달 단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남한산성의 광주행궁은 다른 행궁들과는 달리 정무를 보는 시설은 물론 종묘(선대왕들을 제사지내는 곳) 사직(토지신과 곡신에 제사지내는 곳)에 해당하는 건물도 갖추고 있는데, 이는 전란시 제대로 된 도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된 것이다. 병자호란 당시 대외 항전의 중심지로서 잊을 수 없는 역사적 현장이라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평소에 모르고 있거나 궁금해 하던 것들을 새로 깨치게 되는 것이 역사 탐방에서 빠질 수 없는 재미인데, 나로서는 이번에도 그런 깨우침의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 행궁이 임시 도성이니 만큼 좁은 공간에 많은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그 건물들의 위계가 다 달랐고 그 위계에 따라 다른 이름들이 부여되어 있었다. '전당합각 재헌루정(堂閣閣齋軒樓亭)'. 손바우 선생이 건물에 대해 설명하면서 외운 이 여덟자가 그동안 나의 궁금증을 다 날려준 말이었다. 이제까지 절간이나 하회마을, 혹은 궁궐을 다니면서 현판을 볼 때마다 그 이름 뒤에

붙이는 말들이 어떤 규칙이 있는 줄은 알겠는데, 그 규칙의 내용을 몰라서 답답한 적이 많았다.

남한산성 행궁만 하더라도 '한남루, 내행전-외행전, 일장각, 좌승당, 이위정' 등 현판의 마지막 글자가 다양하게 망라되어 있다. 절간에서도 '대웅전, 미륵전, 범종루, 종각, 산신각' 등은 흔하게 볼 수 있는 건물들이다. 이런 건물의 이름들이 지닌 위계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당합각 재헌루정'의 여덟 글자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터넷 검색으로 바로 알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자. 단지 상대에 대한 2인칭의 경칭으로 '폐하-전하-합하-각하' 등으로 위계가 나뉜다는 사실이 이 건물의 위계와 일치한다는 점만 언급해 두자. '당하'는 상대에 대한 경칭으로 쓰이지는 않고 '당상관-당하관' 등의 용례를 보인다는 점도 재미있는 현상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도 누누이 경험했던 바인데, 이번에도 역시 그러했다.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 성문 바깥쪽으로 반원형으로 쌓은 옹성이나 성의 담장 뒤에 숨어서 적에게 총을 쏘기 위한 총안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총안이 근총안과 원총안으로 나뉘어 각도를 달리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그 총안이 설치된 낮은 담장 자체를 성벽과 구분하여 여장(女牆)이라고 부른다는 사실도 몰랐다. 그냥 성벽과 여장을 구분하여 볼 줄 몰랐던 것이다.

아는 것이 모자라니 보는 것 역시 모자라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진리라거나 불변의 객관이라고 우기지 말 일이다. 한순간의 깨우침으로도 이렇게 보는 게 달라지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 매사에 신중하고 겸손할 일이다.

행궁을 지나서 만해기념관으로 옮겼다. 기념관에 전시된 전 시품들도 귀하지만, 평생을 만해 연구에 바치고 사설 기념관까지 지어서 만해를 기리고 있는 전보삼 관장을 만난 것이 나에게는 더 인상에 남았다. 점심 후 전 관장께서 우리에게 짧게 강연을 하셨는데, 강연의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그에게서 풍겨 나오는 독특한 분위기가 좋았다. 그만한 열정을 가지고, 오랜 세월을 머리로 연구하고 발로 찾아다닌 흔적이 켜켜이 쌓인, 일생을 오롯이 한 길을 걸은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깊이와 고집이 느껴졌다.

강연 내용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보통은 ‘님의 침묵’을 읽으면서 ‘님’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데, 그보다는 ‘침묵’의 의미에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었다. ‘님’의 의미는 흔히 한용운이 일생 동안 걸어온 길을 통해 ‘나라(독립운동가), 부처(승려), 사랑하는 이(보통의 인간)’으로 보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그렇게 한정할 필요도 없다. 한용운 자신도 ‘군말’에서 ‘님만 님이 아니라 기루(사랑하는, 귀히 여기는) 것은 다 님이다’라고 하면서, 석가에게는 중생이, 칸트에게는 철학이, 장미화에게는 봄비가, 마치니에게는 이태리가 ‘님’이라고 말한 점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한용운 자신에게는 ‘자유의 구속을 받는, (그래서) 해저문 들판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이 자신의 ‘님’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아마도 중생으로서 고통받고 있는 당시의 조선 민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침묵’에 주목하라는 말은 나에게서는 진실로 시작품 그 자체와 거기에 담긴 한용운의 불교적 인식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열쇠에 해당하는 깨우침을 주었다. ‘침묵’은 ‘이별, 죽음, 상실, 무(無)’와 상통하는 개념인데, 이를 바라보는 관

점에 따라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 보통은 ‘침묵, 이별, 죽음, 상실, 무’를 더 이상의 것이 없는 완전한 종말로 보고 그것 때문에 ‘눈물과 슬픔’ 혹은 절망의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님의 침묵’에서 한용운은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이별에 대해 완전히 다른 관점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다시 말해, 님이 떠나가서 그 결과 ‘이별과 침묵’ 때문에 사랑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나 때문에 내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사랑을 깨치는 것은 님의 떠나감 때문이 아니라, 이별에 대한 나의 잘못된 태도 때문이다. 바꿔 말해, 이별에 대한 제대로 된 관점을 정립하면, 이별이 곧 사랑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관점을 바꾸면 ‘침묵, 이별, 죽음, 상실, 무’가 새로운, 그래서 한 단계 더 높은 ‘발언, 만남, 생명, 획득, 유’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끝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님의 침묵 속에서도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을 지닐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님의 침묵’은 슬픔과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인 것이다!!

한용운은 ‘침묵-발언, 이별-만남, 죽음-생명’의 관계가 적대적 대립이 아니라 변화 발전하는 생성의 관계로 보는 관점에 서 있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망국(亡國)’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그것도 한 단계 더 높은 경지로 나가는 시작이 된다. 한용운의 이런 불교 변증법적 인식이 엄혹한 식민지 시대에도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철학적 밑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앞서 간 사람의 밝은 눈이 비추는 길은 한 마디 말을 통해서도 뒤따르는 사람에게 깨우침을 주는 것이리라.

늦은 봄, 제법 세차게 비가 내리는 날이었지만, 오래된 벗들과 함께한 이번 탐방은 뜻밖의 발견과 깨우침으로 인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다. ㉓



雨中登南漢山城 _ 비 내리는 남한산성을 오르며

朴輝峰(Piao Hui Feng)

1967년 중국 귀주생, 1989 북경대 물리학과 졸, 현 중국금력영자 한국지사장

山圍禁殿雲依嶂,

궁궐을 에워싼 산과 봉우리에 내려앉은 구름 사이로

霧鎖樓臺雨打牆.

자욱히 깔린 안개는 누대를 잠그고 쓸쓸한 비는 성벽을 치니

猶聞虜騎聲踏碎,

오랑캐 기병의 말발굽에 산천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酒醒岩上淚千行.

주성암에 앉은 나는 헛된 눈물만 흘리고 있다



서울시, 남산 여장 공원에 “이회영 기념관” 개관

황원섭 기념사업회 부이사장

서울시에서는 지난 6월 9일, 남산 여장자락에 새로 여장 공원과 “이회영 기념관”을 건립하고 오세훈 시장 주재로 개관식을 거행했다. 여장자락은 조선시대 무예 훈련장(여장)이 있던 장소로,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의 통감부와 일본인 거주지가 있었고, 1961년 중앙정보부가 있었던 곳이다.

이날 오세훈 시장은 기념사에서 “센트럴파크와 하이드파크 등 외국 대도시에는 인공적인 녹지공원들이 있는데, 우리의 남산 공원은 서울 중심에 있는 자연적인 보배 같은 공간”이라고 말하고 “2009년 남산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남산 르네상스’가 완성되어 감개무량하다”고 감회를 피력했다. 오 시장은 특히 남산 르네상스의 마지막 사업으로 이회영 기념관을 개관함으로써 공원의 가치와 역사성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강조했다.

이회영 기념관 개관으로 남산의 가치와 역사성 향상

우당 이회영 선생 6형제는 백사 이항복의 11대 세손으로, 1910년 경술국치 후 모든 재산을 처분해 서간도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1920년 폐교할 때까지 3,500여 명의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여 청산리 대첩을 비롯한 모든 독립전쟁의 주도세력이 되었다. 우당 선생은 1918년에는 고종 망명 운동을 추진했으나 일제가 고종을 독살하여 3·1운동 직전 다시 망명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시, 의정원 의원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임정의 분열과 파벌 대립을 보고 독립운동의 최고 지도기구로서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채호 선생 등과 같이 북경으로 귀환하여 아나키스트 독립운동과 의열투쟁을 지도했다. 1931년 만주사변 이후 동북3성에서 우리 독립군이 약화되자 독립군을 부활하고, 중국과의 연합 투쟁을 위하여 요령성으로 잠입하던 중에 대련에서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1932년 11월 17일 여순감옥에서 일본 경찰의 취조 중에 고문으로 순국하셨다.

남산자락은 우당 선생과 연고가 깊은 곳이다. 선생 6형제가 명례방(명동)에서 태어나 여기에서 성장했고, 청년 시절에는 둘째 형 이석영 선생 소유의 흥업정에서 이상설, 이동녕, 이시영, 여준 등 당시 선진적인 지식인들과 함께 함축하면서 서양의 정치, 경제, 법률, 역사와 과학 등을 연구하면서 민족의식과 자주독립 정신을 길렀던 곳이다. 바로 인접해 있는 상동교회에서 상동청년학원을 개설하여 전국에 있는 애국청년들을 모집하여 신학문과 민족의식을 교육했고, 독립운동 비밀결사 신민회를 창립했던 곳도 여기 남산자락이다. 남산자락은 항일구국운동의 기반이었으며, 요즘 말로 독립운동의 플랫폼이었다.



남산에는 독립운동과 관련된 시설이 많다. 백범광장에는 김구 주석과 이시영 부통령 동상이 있고,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으며, 장충 자락에는 이준 열사의 기념물과 3·1운동 기념비도 있다. 여기에 이회영 기념관이 새로 개관함에 따라, 남산은 우리 국민들에게 독립운동 정신과 나라 사랑 정신을 심어주는 역사공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는 우당 이회영 선생의 생애와 독립운동, 우당 6형제의 활동, 부인 이은숙 여사의 저서 서간도시종기(西間島始終記)의 육필원고와 감동적인 이야기, 대형 가계도가 전시되어 있다. 또한 신흥무관학교의 연혁과 학생들의 훈련 영상 등 다양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독립군이 무장했던 체코 군단 무기와 장비 특별전시

한편, 개관 특별전시로 체코군단공동체에서 기증하여 독립군들이 사용했던 소총과 권총, 체코군의 군복과 장비, 비품 등을 내년까지 특별전시하고 있다. 체코군단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편으로 종전 이후 고국으로 돌아갈 길이 막혀버리자, 내전 중이던 러시아를 횡단하는 '동진'을 감행, 1920년 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유럽행 배편으로 귀향하면서 쓸모가 없어진 무기들을 독립군들에게 팔아넘겼다. 봉오동전투(1920년 6월)와 청산리 대첩(같은 해 10월)에서 독립군의 화력을 뒷받침한 것이 이때 체코군단으로부터 사들인 무기였다.

단지 아쉬운 점은 이회영 기념관은 일반적인 건축물이 아니다. 여장 공원의 지하 대형주차장의 일부 공간에 마련한 임시 시설이다. 남산자락이라 숲이 우거져 자연환경은 탁월하지만,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냉난방이나 공기조화 시설 등 건축환경은 다소 열악한 편이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최첨단 전시 기술과 영상 기법을 활용하여 전시했고, 우당기념사업회에서 위탁받아 정성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 면의 취약점을 충분히 보완하리라고 생각한다.

우당이회영기념사업회에서는 각종 전시자료를 활용하여 독립운동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하여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독립운동을 알려서 역사의식을 정립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양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시민 평생교육 분야에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케이잡스

김우진



세상에 남이 나보다 더 잘되면 좋아서 환호하고 하이파이브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
내가 하는 일은 그런 일이다.
나보다 남이 잘되면 기뻐서 환호하고 주변사람에게 자랑하고
당사자보다 더 좋아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 일은 너무 사랑한다.
나는 대한민국 직업상담사 김우진이다.



위 글은 케이잡스 대표이사 김우진의 자서전에 일부내용을 발췌하여 수록한 글이다. 2014년 직장인에서 30대 경영인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면서 열정적으로 꿈을 위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젊은 CEO이다.

대한민국 고용서비스 전문기업

케이잡스는 7년째 한결같이 달려온 고용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청년층,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시니어에 이르기 까지 사람과 일자리, 사람과 기업을 이어주는 JOB-Networking Social Service 전문가 집단이다.
케이잡스는 Korea-JOBS라는 대한민국 토종기업으로 공공·민간 전직지원서비스, 일자리지원서비스, 기업교육 및 컨설팅, 학교교육, MICE 사업 등 다양한 계층 및 분야에 총 130여 명의 전문인력이 전국 16개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전직 및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법률」에 의거 “2020년 5월부터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의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제공이 의무화가 되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IDOL 프로그램(재직자, 교육훈련, 퇴직 및 예정자, 학습)을 통해 재취업, 생애설계, 창업지원서비스 등을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직원 및 임원전직프로그램과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재직자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재취업교육, 1:1컨설팅 그리고 취·창업지원 및 생애설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의 미래설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신뢰와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 고용서비스 전문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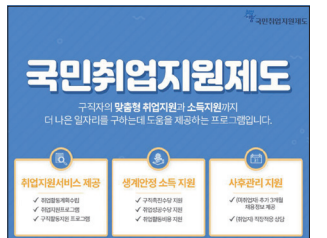


재취업지원 서비스 시행지원 기업컨설팅

케이잡스는 「9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대상」 기업내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도 설계 및 서비스 도입과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운영중에 있다. 관련 사업은 900인 이상인 대상기업에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을 통해 임직원에게 안정적인 제2의 인생설계를 지원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소속기업에 대한 자부심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에서는 정부지원을 통해 무료로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전담인력 역량강화 및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기업컨설팅을 제공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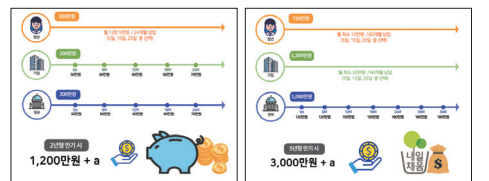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ONE-STOP 일자리 지원 서비스

K-JOBS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을 전국 13개 지역에서 운영하면서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전문 직업상담사와 함께 1:1상담 및 취업지원 활동계획을 세우고 취업 알선을 진행하여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통합적이고 체계적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며 현재까지 수만 여명의 구직자에서 취업지원을 실시하여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고 있는 기업이다.



청년층의 일경험 및 장기근속 유도 서비스

또한 청년층 특화 지원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등 청년층 참여자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근속을 유지시키면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인력을 고용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등 종합적인 청년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케이잡스는 고용서비스 전문기업으로 Job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구직자 및 퇴직을 준비하는 예정자분들에게 오늘보다 더 아름다운 내일을 설계하는데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일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신뢰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성장해 가는 미래가 촉망되는 기업이다.

※ 소식지에서 사업회 회원님들을 소속 회사나 단체 등을 소개해드립니다.
소개 원고는 사무국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 hwasarang080@naver.com)

▶ 반병률 교수 정년기념식



기념사업회 편집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반병률(한국외대 사학과) 교수께서 지난 6월 9일 마지막 강의와 정년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반병률 교수님은 한국독립운동사와 관련해서는 국내 최고 권위자로 크나큰 연구 업적을 이루셨고 우리 기념사업회에서 도 매년 학술회의 개최는 물론 소식지 발간, 홍범도 역사와 미래탐사대 자문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올해 3·1절 홍범도 장군의 부인 단양이씨와 장남 홍양순 선생의건국훈장 수여에도 역사(증빙)자료 발굴 등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반병률 약력 및 주요 저서

- 1956 충북 음성에서 출생, 1975 경기고 졸업, 1975 서울대 입학. 국사학과(1977)
- 1996 미국 하와이대 역사학과 박사학위
'러시아 원동과 북간도 지역에서의 한인민족 운동'
- 1997 한국외대 사학과 교수
- 1999 월봉저작상
- 2019 의암대상(학술부문)
- 주요 저서 성재 이동휘 일대기(1998)
우즈베키스탄 한인의 정체성 연구(2001)
국외 3·1 운동(2009)
1920년대 전반 만주, 러시아 항일무장투쟁(2009)
여명기 민족운동의 선구자들(2013)
망명자의 수기(2013)
홍범도장군 : 자서전 홍범도 일지와 항일무장투쟁 (2014)
The Rise of the Korean Socialist Movement (2016)
통합임시정부와 안창호, 이동휘, 이승만(2019)
항일혁명운동가 최호림과 러시아지역 독립운동의 역사(2020)
러시아 고려인 사회의 존경받는 지도자 최재형(2020)



▶ 남양홍씨 대중중회 '당성지 발간', '행촌 남양군 장학회 발족'

남양홍씨남양군파대중중회에서는 선조들의 행장기를 자세히 번역한 '당성지'를 발간하였습니다. 역사 기록과 선조의 비문과 단비문의 번역을 통해 선조들의 커다란 공훈과 업적을 기리는 '당성지'의 출간이 남양홍문 후손들에게 가문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남양홍문의 인재 양성을 위한 '행촌 남양군 장학회'가 발족되어 오는 8월 고등학생과 대학생 22명에게 장학금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장학금 기탁은 고려제강(주)와 많은 분들이 후원에 참여하였으며, 장학회는 장학금이 사회에 공헌하고 국가의 동량이 될 인재가 키워지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임원 연회비 입금현황 (2021년 1월~6월, 납부일 순)

최윤 최익훈 이경철 홍성중 채예진 부윤경 이명우 조승문 조태수 홍이표 홍순계 김수송 김찬 김태원 김우진 안태호 김진형 박석봉 문현군 정광균 이재호 정보현 김용환 황원섭 홍재구 홍성덕

CMS회원 회비 입금현황 (2021년 1월~6월, 가나다 순)

(사)한국마트협회 JIN CHUNXING 강도연 강미혜 강태영 고형오 구자룡 권석중 권수정 권영희 권재석 김거성 김경애 김관표 김대영 김대한 김도식 김미선 김미자 김민경 김사업 김상우 김선자 김성미 김성순 김성애 김성현 김수오 김신애 김양미 김영진 김옥찬 김용경 김우진 김재현 김정식 김준수 김준영 김창환 김철순 김태원 김학필 김한백 나명현 나홍섭 노용기 맹진규 문삼영 민기식 민병훈 박국진 박규만 박기호A 박기호B 박도산 박선원 박은용 박점조 박조수 박준영 박지호 박태근 배규식 배영실 백장현 서민 서양원 석진경 석해경 설정선 손여록 손현상 송정화 신선준 신승관 신원철 신재면 심상길 안상환 안선중 안영수 안영현 안태일 엄기인 엄범용 여상연 오연근 우문식 유봉석 윤여각 윤진희 이명수 이병국 이상진 이성미 이수연 이순자 이승룡 이영란 이영희 이우엽 이원규 이원정 이원형 이유창 이윤기 이은영 이정원 이주열 이주용 이준호 이종달 이지련 이자선 이태준 이태훈 이형란 이현주 임현문 장송희 전광출 전성배 전중선 전형범 전홍기 정동준 정두영 정병훈 정성관 정용운 정윤미 정은숙 정인택 정준수 정지국 정현석 제성수 제옥평 조국환 조봉현 조영욱 조영익 조현재 지애숙 지영순 지예은 지현주 채인묵 천상영 최성우 최재호 최항수 하기호 한동진 한영우 한재원 허양순 홍영만 홍전표 홍정희 홍희령 황덕순 황선익 황종섭

임원명단

이사장	우원식(국회의원)	김경호(대구광역시 자문대사/전 주러시아 대사관 정무공사)
명예이사장	이종찬(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건립위원회 위원장)	김양진(BC카드 상임감사)
부이사장	황원섭(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공동대표)	김용환(전 한남대 부총장)
감사	박형상(변호사 / 전 서울중구청장)	김진형(특허법인 아주 고문)
상임이사	홍순계(IBK연금보험 상근감사위원)	김태원(NH 증권 부사장)
사무총장	한동건((주)태백자원개발 대표이사)	김현정(사무금융노조 위원장)
이사	강호형((주)KC COTTRELL 감사)	남인순(국회의원)
	김수송((주)이음컴넷서비스 대표)	류병균(평화전략연구소장)
	김우진(K잡스 대표이사)	박대봉(한국비즈니스컨설팅사 주식회사)
	김준목((사)혁신경제 이사장)	박석봉(전 육사 교수부장)
	김 찬(한국사학진흥재단 사무총장)	부윤경(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
	김현권(전 국회의원)	석순용(특허법인 신세기 대표)
	김형상(조이 세무회계 대표)	손양호(전 대한불교조계종 중앙박물관 후원회장)
	노정래(건화 감리CM본부 부회장)	오세중(대한변리사회 회장)
	문현군(한국노총부위원장)	유 용(서울시의원)
	박드미트리(P&TEC 농업조경법인 대표)	이경철(노원구의회 의원)
	박완주(국회의원)	이명우 (평안남도 지사)
	서경석(현대건설 부사장)	이승종(네무스텍 대표)
	손광춘(건축업)	임태성(재)서산복지재단 이사장)
	안태호(한국전기감리협회 부회장)	정내하((주)미네랄하우스대표)
	위성곤(국회의원)	정수진(하나카드 자문위원)
	유정배(대한석탄공사 사장)	조승문(킨텍스 부사장)
	이명식(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	채예진 (대한고려인협회 부이사장)
	이미자(전 종로구의원)	최익훈(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객원교수)
	이재호(한국리싸이클링 대표)	한승관(대한변리사회 회원이사)
	정광균((주)미르나인 대표)	홍성덕(전 주독일한국대사관 공사)
	정보현(노원 소상공인협의회 감사)	홍의락(전 국회의원)
	제종길((사)도시·인·숲 이사장 / 17대 국회의원)	홍재구(당정사적보존회 회장)
	조태수((주)다현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최 윤(E3플랜비 대표이사)	
	최재용(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	
	한영기(제40대 평창군수)	
	홍성중(남양홍씨 남양군파대중중회 회장/토금산업 회장)	
	홍이표(하이리빙 대표)	
	홍종표(강동수산 대표이사)	

후원안내 : 신한은행 100-027-188760 (사)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홈페이지 : www.hongbumdo.org
회원가입 : 김현식 사무국장(02-784-3601)



회원가입